

## APEC 인적자원개발 동향



이영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제19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회의(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HRD WG)가 1999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대표<sup>1)</sup>, APEC 사무국 관계자 및 회원국 인력개발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회의 운영은 전체회의에서 98년도 팔라 롬프르 정상 및 각료회의 결과보고, 실무그룹활동보고, 교육개혁 심포지움 등이 있었고 네트웍별 분과회의에서는 사업경과보고와 신규사업 제안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APEC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APEC의 개황을 먼저 기술하고, 최근 APEC 정상 및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인적자원개발 추진방향과 HRD 실무그룹회의에서 채택된 협력사업 우선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APEC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타이완, 타이페이, 홍콩, 차이나,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베트남, 페루, 러시아 등이다.

2) APEC은 전세계 교역량의 47.8%, 세계 GDP의 62.6%를 차지하여 명실공히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총교역의 68.1%, 해외투자의 8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 파트너이다.

### 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가. APEC의 설립과 목적

비공식 협의포럼으로 시작한 APEC은 1989년 11월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연례 각료회의의 형태로 발족되어 현재 21개의 회원국과 3개의 옵저버, 즉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 PECC),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 ASEAN), 남태평양 포럼(South Pacific Forum : SPF)이 참여하는 역대 최초의 범지역적 정부간 공식협력체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적 경제협력 포럼으로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있다.

APEC<sup>2)</sup>의 장기목표는 다자간 개방무역체제의 강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그리고 지역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기술협력의 강화이다.

나. 조직구성

APEC의 조직은 3개의 공식회의(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Meeting))와 3개의 공식위원회(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그리고 APEC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문기구로서 저명인사그룹회의(Eminent Persons Group: EPG)와 비공식그룹회의로서 아·태경제지도자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정상회의)가 있다.

다. 주요 사업

APEC의 주요 국제협력사업은 크게 세 가지 협력활동 영역에서 전개된다.

첫째, 경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APEC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협의 및 현안을 분석하는 협력활동이며, 둘째, 무역투자위원회가 담당하는 역내 무역 자유화와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협력활동, 셋째, 공동협력 실무그룹에서 담당하는 분야별 협력사업으로 나누어진다. 분야별 협력사업은 크게 10가지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인 사업은 ① 교역 및 투자데이터(TTD) ② 무역진흥(TP) ③ 산업과학기술(IST) ④ 인적자원개발(HRD) ⑤ 에너지협력(REC) ⑥ 해양자원보전(MRC) ⑦ 정보통신(TEL) ⑧ 수산(FWG) ⑨ 관광(TWG) ⑩ 수송(TPT)이다.

**2. APEC의 인적자원개발**

가. HRD 연혁

1989년 11월 각료회의시 투자,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합의하고 1990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활동의 하나로 독립하였다. 운영방식은 회원국의 기관 및 전문가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조정관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인적자원개발 협력사업은 정보 교류, 공동연구, 세미나, 연수사업 실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 ① 기업경영(Business Management Network, BMN), ② 교육포럼(The Education Forum, EdFor), ③ 산업기술(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Industrial Technology, HURDIT), ④ 노동시장정보(Labour Market

Information, LMI), ⑤ 경제개발관리(Network for Economic Development Management, NEDM).

### 나. 인적자원개발 동향

#### 1) 정상 및 각료회의의 HRD 추진 방향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7년 이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강조된 인적자원개발의 추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경제회복과 21세기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강조함.

- 경제운용 능력 배양 (Economic Capacity Building)
  - 아·태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기술 향상, 경제 하부구조 개선, 중소기업 육성 등을 강조함.
- 직업능력개발 (Skills Development)
  - 1998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정상회의 의제의 하나로 「직업능력개발」을 제안하여 정상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정상회의는 직업능력개발을 99년도 HRD 주요 추진과제로 채택함.
-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 평생학습과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이(School-to-work transition)는 한 개인에게 유용한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양질의 노동력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데에 동의함.
- 협동과 참여를 통한 능력개발의 증진
  - 능력개발은 노동시장과 경제환경의 변화를 적응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증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인적자원개발에 노사참여의 증진
  - 아·태지역의 국민복지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정부는 물론 노·사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 확대
  - 1997년 APEC 의장국 캐나다의 여성과 청소년의 APEC 활동참여 확대를 위해

1997년 APEC의 주요 의제에 포함하였음.

## 2) 실무그룹 협력사업

제15차 HRD 실무그룹회의 (97년 1월 시드니에서 개최)에서 중기전략 우선추진 분야에 관한 선언서를 채택하고 향후 3년간 HRD 실무그룹의 전략적 추진 협력분야를 아래와 같이 명기하였다.

- 양질의 기초교육의 제공 : 모든 사람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킴.
- 노동시장 정보 및 분석 :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무역, 투자에 기여할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보유하도록 노동시장 정보체제를 개선함.
- 관리자 및 기업가 훈련 : 중소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 및 지속적 성장과 관련된 분야에서 관리자, 기업가 및 훈련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킴.
- 평생교육의 촉진 : 개인의 교육 훈련 요구와 새로운 직업에 요구되는 직업능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속 교육 훈련이 필요함.
- 교육과정 향상 : 기초교육에서부터 직업기술훈련, 전문적 경영능력에 이르기까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방법의 질을 향상함.
- 전문인력 이동 촉진 : 기술자격의 상호인정을 통해 기능인력부족에 대처하고, 개별 회원국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함.
- 회원국의 노동력과 작업현장의 질, 생산성, 효율성을 증진하고 공정한 발전을 도모.
- 협력 강화 : 무역투자 자유화와 촉진을 위한 교육 훈련 분야의 협력 강화.

## 다. HRD 협력활동

HRD 협력사업은 정상 및 각료회의 주도 사업과 실무그룹차원에서 제안되어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진다. 정상 및 각료회의업에는 APEC 교육 파트너십, 직업훈련프로그램, 기능개발 등의 사업이 있다. 인력자원개발 실무그룹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업은 약 50개로(이번 실무그룹회의에서 13개의 신규사업이 제안됨) 위원회나 다른 실무그룹 보다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98년 정상회담에서 인적자원개발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HRD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연구와 세미나가 대부분이고 훈련과 관련된 사업은 5-6개 정도이다. 협력사업의 참여는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사업에의 참여와 다른 나라가 제안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협력사업 참여의 효과는 외국의 HRD 동향을 파악, 정책수립에 필요한 외국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HRD 홍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수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상호인정 같은 사업을 통하여 인력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 라. 우리나라의 APEC HRD 참여

우리나라는 APEC의 출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 사업 초기에는 실무그룹 경제개발관리네트워크의 국제조정관을 담당(한국개발연구원)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수행중인 HRD 협력사업으로는 정상 및 각료회의의 주도 사업인 APEC 직업훈련프로그램(1993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제안하여 97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사연수사업)과 청소년 기능 박람회(Youth Skills Camp : 1997년 제2차 HRD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으로 2000년 7~8월경 서울에서 개최 예정)가 있다.

또한 실무그룹차원의 협력사업으로는 교육포럼의 개방학습비교연구, 교육전문가 교류 등의 교육부 제안사업이 수행중이며, 이번 칠레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APEC Education HUB(교육센터)으로서의 KDI 스쿨"이라는 신규사업을 제안하여 각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현재 APEC에서 수행되고 있는 50여개의 HRD 협력사업 중 우리나라는 20개 정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로 살펴 보면 교육포럼과 산업기술네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네트워크의 활동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가 자주 바뀌어 업무에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HRD 분야에서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두보로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사업 참여를 통하여 선진국의 선행경험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HRD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